

25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42.74

(+45.78)

↑ 코스닥

827.15

(+13.82)

↓ 금리

3.830

(-0.006)

↑ 환율

1386.15

(+3.75)

혼란의 세제·부동산 대책… “전면 손질” 반발

당정, 8·3 세제개편안 재검토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상향 검토
용산·태릉CC·과천 등 주민반발
8·13 주택 신규 공급방안 ‘제동’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8·3 세제개편안’은 여론 악화에 재검토에 들어갔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서울 용산을 비롯해 염창공원과 태릉, 경기 과천 등 주요 후보지마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8·3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인정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보유공제 한도도 오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만저 세제개편 관련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올라온 의견만 종부세법 관련 9370건, 소득세법 관련 4082건 등 총 1만3452건에 달한다. 특히 직장이나 부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와 같이 취급한다는 불만이 컸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8·3 부동산 세제개편 ‘관심 집중’

25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서초구청이 주관하는 무료 세무 설명회다. /뉴시스

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고위당정협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향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의 경우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 서면서다.

다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기본틀은 바뀌지 않는 데다 개편안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상 땀질처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역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기 보다는 비거주 예외 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 매물은 증가한 반면 전세 시장은 물건이 급감했다. 세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팔기로 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8·13 주택 신규공급 방안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신규 택지로 낙점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를 포함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용산과 태릉CC, 과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거 환경 악화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오는 26일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회동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오 시장은 “(용산공원)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내년 800조 예산 메가프로젝트 등 5대 분야 뒷받침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당정이 25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며 “프로젝트 성공의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예산처, 예산안 당정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정 효율 운용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일자리로 성과 이어져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추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을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 “또한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정태호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AI 총력 지원 외에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중앙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 달 착륙과 관련한 연구개발,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해 인턴을 해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서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metro



metro

처리량 30배 ‘베라루빈’… 피크전력 13% 낮췄다

핫칩스 2026

루빈GPU 세부구조·실측결과 공개
삼성·SK HBM4 탑재, 전력감축 과제

엔비디아가 전력 사용량을 늘리지 않고 인공지능(AI) 처리량만 최대 30배 높은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의 실측 결과를 내놨다. AI 반도체의 경쟁 기준이 연산 속도에서 전력효율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다.

베라 루빈에는 HBM4(6세대)가 처음 탑재되는 만큼, 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력 소모를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한국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학회 ‘핫칩스 2026’에서 루빈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세부 구조와 실측 결과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이날 앞세운 지표는 연산 속도가 아닌 전력당 처리량이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추론하고도 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틱 AI 작업에서 베라 루빈 NVL72는 전작인 GB300 NVL72보다 1메가와트(W)당 토큰 처리량이 10배에서 최대 30배 높게 측정됐다.

전력을 배분하는 방식도 함께 개선했다. 엔비디아는 구간별로 전력을 고르게 분산하는 ‘지능형 전력스무딩’을 적용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시 피크 전력을 13% 낮췄다고 밝혔다. 여기에 GPU와 서버랙 단위의 최적화를 더하면 확보한

전력량 안에 GPU를 최대 40% 더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지 않고도 연산 능력을 늘릴 수 있어,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력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토큰 소모량 급증이 있다. 엔비디아가 인용한 오픈라우터 자료에 따르면 에이전틱 작업은 일반적인 AI 이용보다 요청당 약 15배 많은 토큰을 소모한다.

처리할 데이터가 늘어나면 부담은 메모리로 옮겨간다. 가속기의 처리량이 커질수록 HBM에 요구되는 대역폭이 높아지지만, 대역폭을 키우면 소비전력과 발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해진 전력 안에서 성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메모리가 쓰는 전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에서 대역폭과 전력효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4일(한국시간) 열린 메모리 기술 튜토리얼에서 삼성전자는 로직 공정을 활용한 HBM4와 HBM4E(7세대), HBM5(8세대) 등 차세대 베이스다이의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베이스다이는 적층된 D램 하단에서 데이터 입출력과 전력을 제어하는 칩으로, HBM4부터 입출력 통로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면서 역할이 커졌다.

〈2면에 계속〉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與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절충안 입법 시도
▲장동혁 “李, 경찰 문제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였나”
/사진 뉴시스

▲권영진, ‘당원권 정지’ 징계에 “부당하고 가혹…법적 대응 고민중”
▲대부분 가솔이라는 연 7만건 ‘성인 실종’…작년 사망 900건 넘어

▲“스벅 가야지” 선창 배재고 야구부 2명, 선수 생활 포기
▲‘132년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 年120만원씩 지급